

과학기술시대 향도로서의 자부심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번 제3차 정기총회('94. 1. 31. 연세대 알렌관)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통신위성·우주산업 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맡게 된데 대하여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일뿐 아니라 그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며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임 최순달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분야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자임을 사명으로 발족한 우리 연구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열성으로 가꾸어 이제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 육성하여

아직 시작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위성사업 분야 중흥의 진일보한 업적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새기며 새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냉혹한 국제 경쟁사회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국으로 진입하여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국제 시장과 기술우위의 위치를 선점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리 전문인들의 노력과 사명감 넘치는 역할 분담은 물론 사심없는 의기투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더욱이 내년도로 다가온 무궁화호 위성의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성보유국으로서 국제위성사업에 참여하여 외국의 위성사업자들과 당당히 경쟁하여야 할 필연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위성개발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기술인력의 육성과 차세대 위성사업에 대한 방향정립 또한 우리시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단법인 통신위성·우주산업 연구회장의 책무를 맡으면서 시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사안들에 대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착안하여 1) 미래사회의 지향 2)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 3) 공공복리 증진 4) 산업화·실용화 5) 전문기술의 영역 및 저변 확대를 소임 수행의 근간으로 하여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학술발전과 정책방안 제시에 기여하고자 연구회 활동의 지향목표를 설정하여 보았으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계의 지구촌 정보화 시대가 예상을 초월하여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현실속에서 기술우위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기술혁명, 변혁의 시대를 선도하고 계시는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과학기술시대의 향도로서의 자부심으로 더욱 심기 일전하여 새로운 설계와 기획으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서 큰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4. 3.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장 이충웅